

표류하는 정치개혁법

국민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97년 7월 30일은 한국사, 아니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인 날이다.

당리당락에 급급한 여야

20분만에 7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1분당 3.43개의 법안을 통과한 셈이며 역산을 해보자면 1개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 약 17초가 걸린 셈이니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기 때문이다.



손호철 (서경대 정외과 교수)

정치의 권력 투쟁이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등 정치개혁법의 개정 여야간의 당쟁에 분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행하여 오는 대선에는 과거와 같은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러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특히 정치권의 개혁이 관개와 관련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개혁의 몇가지 방향이 있다.

국민시대 무시하는 처사

사당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주요 후보들의 공천권을 일반당원내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예비선거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 죽음향한 무한질주



◇다이애나를 죽였을 내몬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경찰이 사고 자동차를 끌어내고 있다.

다이애나 사망 주원인... 추석 귀향길 술조심해야 작년 음주운전사고 2만5천여건... 979명 사망

31일 일요일에 전해진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각 신문마다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소녀의 꽃다발'을 사진으로 전하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이애나와 그녀의 연인 도디 알파에드를 죽였을 내몬 것은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놀라움을 넘어 숙연케 했다.

사고 당시 다이애나가 타고있던 벤츠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콜 함유량은 범죄에 해당하는 0.175%였다. 프랑스의 법적 허용치 0.05보다 세배나 넘어섰다고 프랑스 경찰이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만1천7백45건. 적발된 건수만

그렇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5천7백64건, 하루 70.5건이 발생했다. 9백7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해 전보다 사고발생 건수는 45%, 사망자수는 42%나 증가했다.

지난 7월 1일,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고가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김모씨 부부는 친척과 함께 모처럼 외식을 했다.

마침 추석이 몇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남의 생명까지 해친다

<분별선악소기경>에서는 음주의 허물을 36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말하는 데 잘못이 많고, 스스로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건다가 구멍이 뚫어지고, 발레와 짐승을 죽이고, 나쁜 사람들과 폐가 되고, 음란한 경저서 피할 것이 없게 되고, 과실을 자꾸 범하게 되고, 목숨을 마치면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허물이니라.'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은 체험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사고 체험이 없어서 일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형중 명성여고 교장사.

잇단 10대 범죄

TV홍내 살인...차츰쳐 도주

10대 초·중학생들의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대전 전법에서 중이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남자아이를 죽인 범인은 숨진 전군의 이웃에 사는 8세 12세의 초등학생들이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최초 이모군등 2명을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숨진 전군이 자신들을 평소 놀리자 TV프로그램에서 본 방법으로 숨지게 하고 중이상자에 넣어 대전전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3일에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모종학교 2년 박모군 등 초·중학생 3명이 길가에 세워둔 승합차를 끌고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어린이범죄는 어른들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의 모방적 성격이 짙다며 TV가 보여주는 세계가 아닌 실제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케 하고 생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회추방 국제협약으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인 대인 지회를 추방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일부터 19일까지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회의 사용 생산 이전 금지 △기준보관분의 파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브뤼셀선언을 국제협약으로 끌어올리는 것.

친구위해 범폭범은 '판포지교'

현직판사가 자신과 가족들의 암치료를 위해 범폭을 범자 동료 판사도 친구를 돕기 위해 대법관의 꿈을 접고 변호사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재독교포 복돋기 자선연주회

재독교포와 유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25~27일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서 연주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초등생 유괴 2천만원 요구

초등학생 박초롱초롱빛리양 유괴사건에 대해 경찰이 3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박양은 8월30일 오후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중 20대 여자에게 유괴됐다.



◇범인 홍다주

지하철 승무원 59% '사고날뻔'

서울시민은 불안하다. 서울지하철이 근무하는 기관사 등 승무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인 인텔리서치와 공동으로 지하철직원 2백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승무원 중 58.8%가 차량결함 고장이나 차량점검 미비 등으로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돗물에 발암물질 남아있다

수질이 나쁜 원수(源水)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고도정수처리장에서 물 소독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는 오존이 원수 속의 광물성인 브로마이드와 반응하면서 '브로메이트'란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실이 작성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개발 연구' 보고서에 의해 2일 밝혀졌다.

농축협 꼴서도 감미료 검출

건강식품인 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일 7월중 꿀 것갈 여객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5백22건을 수거, 기준 및 규격검사를 실시, 이중 31개 제품이 감미료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반야 라이온스 클럽 박진완님의 현대불교 신문 부산 지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예공종합건축사 ◆

대표 정 운영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24 전화 : 569-5290 FAX : 483-5724

◆ 장복철강 ◆

대표 신 장 교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603-9 전화 : 634-3439 FAX : 631-3439

◆ 자비승복사 ◆

대표 이 윤 용

주소 : 서울 종로구 관훈동 85번지 전화 : 739-3907

◆ 대 불 광 ◆

대표 허 길 용

주소 : 서울 종로구 전지동 110-43 전화 : 738-1117/8